



· 방치되어 있는 최초의 개량주택 민익두가(서울시 민속자료 15호)

인사동

살펴보기



주최: 도시연대, 서울YMCA,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후원: 국정홍보처

도시연대(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는

98년 11월 청소년, 일반시민들과 함께 인사동 탐방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조를 나누어 인사동에서 사라진 역사문화 유적지 찾기, 인사동에서 20년 이상된 가게 찾기, 인사동 골목길 및 마당 스케치하기, 인사동과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비디오 촬영하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은 행사경험을 토대로 탐방행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이어 99년 4월부터 매달 인사동 탐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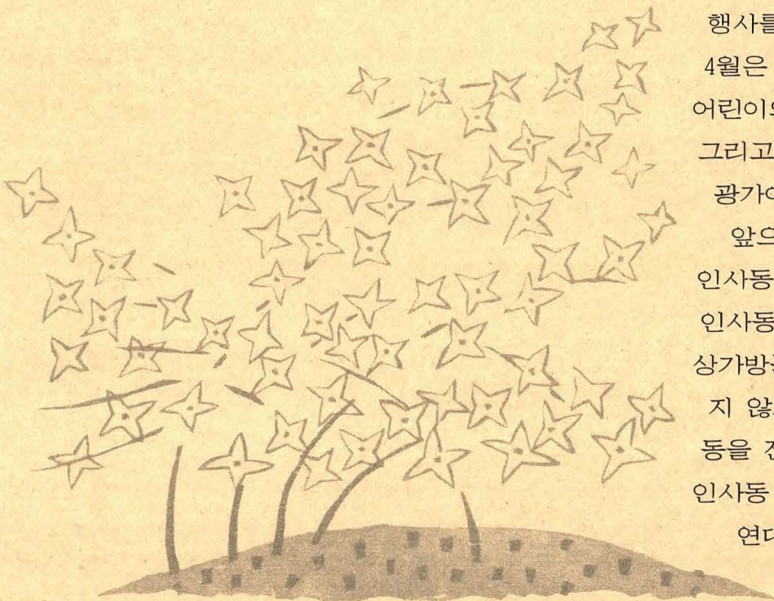
4월은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5월은 어린이의 눈으로 인사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 7월은 시민과 청소년, 외국인 관광 가이드와 함께 인사동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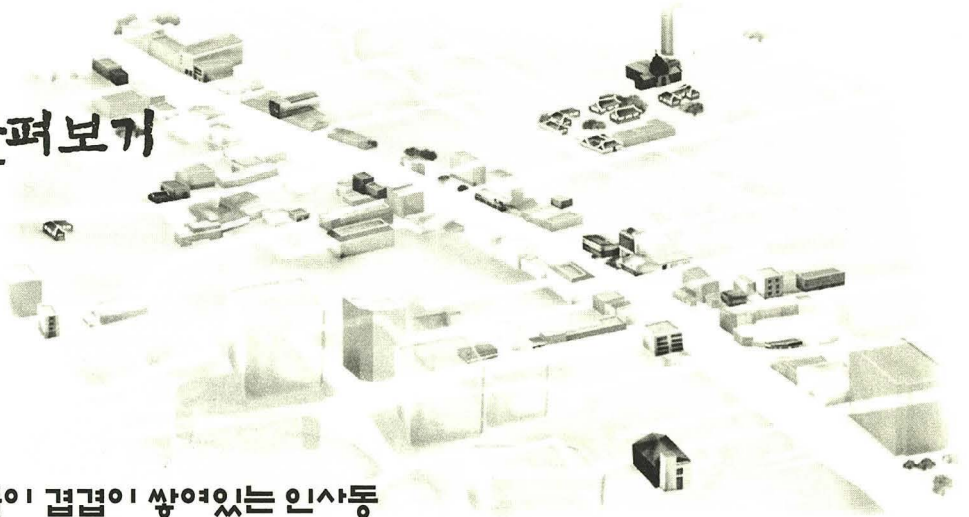
앞으로 9월, 10월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사동 살펴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동의 역사문화 유적지, 골목길과 한옥, 상가방문을 통하여 인사동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인사동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사동 살리기 운동에 관심있는 분들은 도시연대로 연락바랍니다.



인사동 살펴보기



1. 시간의 층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인사동

인사동은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다. 동네의 지반이 시작되는 서울중심점 표지들이 인사동에 있음이 이를 말하고 있다. 인사동은 역사의 중심무대이기도 하다.

울곡 이이선생집터나 조광조집터, 인조잠저터 등 조선조 인물들이 살았던 곳일 뿐 아니라, 조선말 안동 김씨 세도의 본거지도 이곳 인사동이었다. 구한말 조선을 호령하던 대원군의 운현궁도 인사동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의 재동은 개화사상이 싹튼 곳으로 그 중심인물이었던 박영효의 집터가 인사동내 경인미술관 자리에 있었다.

삼일운동 또한 인사동과 관련이 깊다. 삼일운동은 승동교회 지하에서 준비되었으며,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선언한 후 탑골공원에서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또 태화관은 한 때 친일파 이완용의 별장이자 친일파의 모임장소로 이용되기도 한 곳이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종로경찰서도 인사동 부근에 있는 지금의 제일은행 본점 자리에 있었다.

문화와 경제의 측면에서도 인사동은 중요한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도화서가 있어서 미술의 중심지였고, 최초의 신식극장인 장안사도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최초의 사옥을 건립하여 아직도 남아있고, 인사동과 연결된 종로는 서울의 상업중심지였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충무로, 명동의 일본인거리와 대립하는 조선인의 거리로써 조선인의 상업중심지이자 사회적 중심지였다. 최초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도 여기에 세워졌다. 지금은 헐린 이 건물은 근대 조선 건축가인 박길룡선생이 설계한 대표적 근대건축물이었다.

오늘날 인사동은 행정구역상의 인사동이라는 동이름보다는 종로와 율곡로, 우정국로와 낙원동 길을 경계로 하는 구획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본래의 인사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명칭이었던 관인방의 '인' 과 대사동의 '사' 를 모아 만들어진 이름이다.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남아있는 인사동은 조선시대에는 대사동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이 대사동이란 이름은 탑골공원자리에 있던 원각사와 흥복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써 큰 절이 있는 동네란 뜻이었다.

인사동이 지금과 같이 골동품, 고미술품, 화랑, 고서적점 등이 모인 곳이 된 시기는 20세기 들어서였다. 금세기 초반에 먼저 골동품상이 모이기 시작하여 1920~30년대에는 고서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1950년대에는 낙원동 일대에 떡집들이 모여들었다. 60년대에는 필방들이, 70년대에는 표구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화랑가가 형성된 시기는 70년대의 일이다. 오늘날의 인사동은 이렇게 시간의 층들이 겹겹이 쌓여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인사동길과 골목도 시간의 층이 그대로 남아있다. 본래 서울 도심의 길들은 조선 태조의 한양 천도 당시, 한양의 도시계획은 도성의 축수와 풍수지리에 따른 궁궐과 종묘사직의 배치, 그리고 현재의 종로와 태평로의 “T”자형 골격을 중심으로 삼아 경복궁을 연결하는 세종로와 창덕궁을 연결하는 돈화문로가 개설되었으며, 그 외의 소로와 골목길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집을 지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2. 인사동의 현실

(1) 지금 인사동은...

인사동은 시민이 누구나 손쉽게 와서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이면서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특화된 상업지역이다. 외국인들도 살아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즐겨 찾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 인사동이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주는 매력은 다양하다.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전통문화업소가 밀집해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전체 골동품점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42%가 인사동에 밀집해있어서 전통문화적 거리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있지만 화랑의 39% 정도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또 필방은 92%가 인사동에 모여있다. 표구점도 33%를 차지하고 있다.

인사동 골목길은 인사동의 거리이미지와 매력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다. 인사동 내부에 있는 골목들은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좋은 집터를 찾아 내부지역에 집을 짓고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면서 형성된 것들이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이후에는 큰집들이 일반주택지화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잘게 쪼개져서 현재의 개량한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한옥들은 대부분 소규모 필지들이기 때문에 증개축되지 못한 채 주로 전통한식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좁은 골목길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느낌을 방문객들에게 주면서 인사동 이미지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

조선왕조이래 서울 도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건물 및 장소의 존재도 풍부하였다. 지금은 남산 한옥골로 이전되어 박제화된 박영효집이 있었고, 1921년도에 독립운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건축된 천도교중앙총본부는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또한 3·1운동유적지인 승동교회, 화신백화점을 설계했던 조선 근대건축가 박길룡선생의 민익두가가 지방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 조선왕조의 주요인물과 역사문화유적들이 인사동에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대부분 표석만 남기고 사라졌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동은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수년내 지금의 인사동은 사라지고 시민들은 도심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적 장소를 잃게 될 것이다. 산 역사의 장이자 살아 숨쉬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 거리를 잃게 되면 서울은 역사가 죽은 도시, 더 이상 아끼고 사랑해야 할 그 무엇도 없는 도시가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인사동 안팎으로 인사동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① 도로 개설과 확장

그 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해 인사동 옛길들은 하나둘 없어지고 있다. 92년에도 수도약국에서 낙원동쪽으로 8미터 도로가 개설되었고, 민익두가 서쪽에도 6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중단되었다. 새로운 길이 개설되고 사람에게 친근한 골목길들이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반듯반듯한 격자형 도로로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인사동의 소중한 자취들은 사라져왔다.

② 대형건물의 신축

인사동의 역사와 생활을 간직해온 몇 채의 한옥들을 한꺼번에 헐어서 대형건물을 짓고 있다. 율곡로변의 종로경찰서 서쪽에도 11개 필지를 합쳐서 개발하기 위해 집들을 철거한 상태이다. 인사동길 동쪽 동방별곡빌딩도 5개 필지를 합쳐서 건축되고 있다.

③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물의 상실

건물과 집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역사적 가치를 발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민속자료 제18호로써 미술관으로 사용되었던 박영효가는 1996년에 잘못된 문화재보존행정예 의해 남산골로 이전되어 박제화되어 장소적 가치를 잃어버렸다. 지방민속자료 제16호였던 정순주가도 1997년에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3·1독립선언을 위해 33인의 민족대표가 모였던 태화관은 태화빌딩으로 바뀌고 조선시대 도성내 민속경관지역 조사대상이었던 민병도가는 1976년 삼일로 확장시 철거되었다.

④ 이질적 상업시설의 등장

최근 인사동에는 전자오락실이 등장하는가 하면 패스트푸드점, 호프주점, 서양식 카페 등 인사동거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업소와 시설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화랑이 침체되어 폐업을 하거

나 수익이 보장되는 업소로 바뀌는 현상도 늘고 있다.

㉔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경관 및 이미지 훼손

인사동일대는 공평재개발계획으로 급격하게 고층빌딩이 늘어나 인사동을 에워싸고 있다. 화신 백화점은 헐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삼성생명빌딩이 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동은 고립된 섬처럼 낙후되고 쇠퇴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주변의 고층개발이 진행될수록 인사동은 점점 위축되어 마침내 인사동은 그 형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사동 살펴보기 안내

인사동길과 골목길들

서울 600년은 강남까지 포함하는 지금의 서울이 아니라, 조선시대 한양이었던 4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강북의 일부지역, 즉 서울 도심부의 역사이다. 처음 수도를 서울로 정한 조선왕조는 서울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도시를 건설했다.

서울 도심부를 둘러싼 북악, 인왕산, 남산, 낙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을 건설하고 능선과 능선 사이 평지부분에 성문을 설치하였다. 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들에 궁궐과 주요시설들이 배치되었고, 성문과 성문 그리고 궁궐과 같은 중요시설들을 연결하기 위해 넓은 간선도로를 만들었다. 가장 넓었던 세종로는 폭이 60미터에 이르렀으며, 종로도 넓은 곳은 35미터, 좁은 곳도 19미터였다. 이처럼 자연에 순응하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반시가지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레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가 기능을 할 수가 있었다.

당시 서울의 주택은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ㄷ'자형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집들이 모이면 길과 접하는 한 면을 제외하고 3면이 다른 주택과 접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집들이 서로 등과 등을 맞대면서 모여있기 때문에 길도 마치 시냇물처럼 작은 줄기가 모여 큰줄기가 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었다. 길을 따라 끝까지 가보면 맨 마지막에는 막힌 골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막힌 골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골목을 적당하게 구부려서 마치 막힌 골목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거두었다. 주택의 평면형태가 엄격한 격자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집터는 반듯하지 않고 길이 이리저리 구부러진 도시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구부러진 길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서양의 도시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는 광장과 같이 특별하게 구분된 외부공간이 없었다. 길 그 자체, 혹은 길과 길이 만날 때 생기는 조그마한 여유공간이 마을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교류하는 일상생활의 터전이자 마을마당이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골목길은 강제적인 힘에 의해 계획지워진 길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들이 쌓여 있다. 그것들이 모여 살아있는 도시의 역사를 보여준다.

인사동은 조선시대 집터(필지)와 길의 특징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 특징들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거리의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가진 크고 작은 업소들이 유지될 수 있었다. 만일 인사동길들이 다른 곳의 길들처럼 자동차가 드나들기 편한 격자형도로로 바뀌게 된다면 인사동의 매력은 사라

지게 될 것이다. 인사동의 대표적 길들은 인사동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인사동길, 충훈부터가 있는 골목길, 종로이면에 있는 피맛길, 산촌식당이 있는 막힌 골목 등이다.

① 인사동길

북악산에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물길 옆에 자연스럽게 생긴 길이었는데, 1970년경 이 물길이 복개되어 현재의 인사동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도시계획에 의해 북쪽 일부 구간의 폭이 확장되었다.

② 충훈부터가 있는 골목길 / 산촌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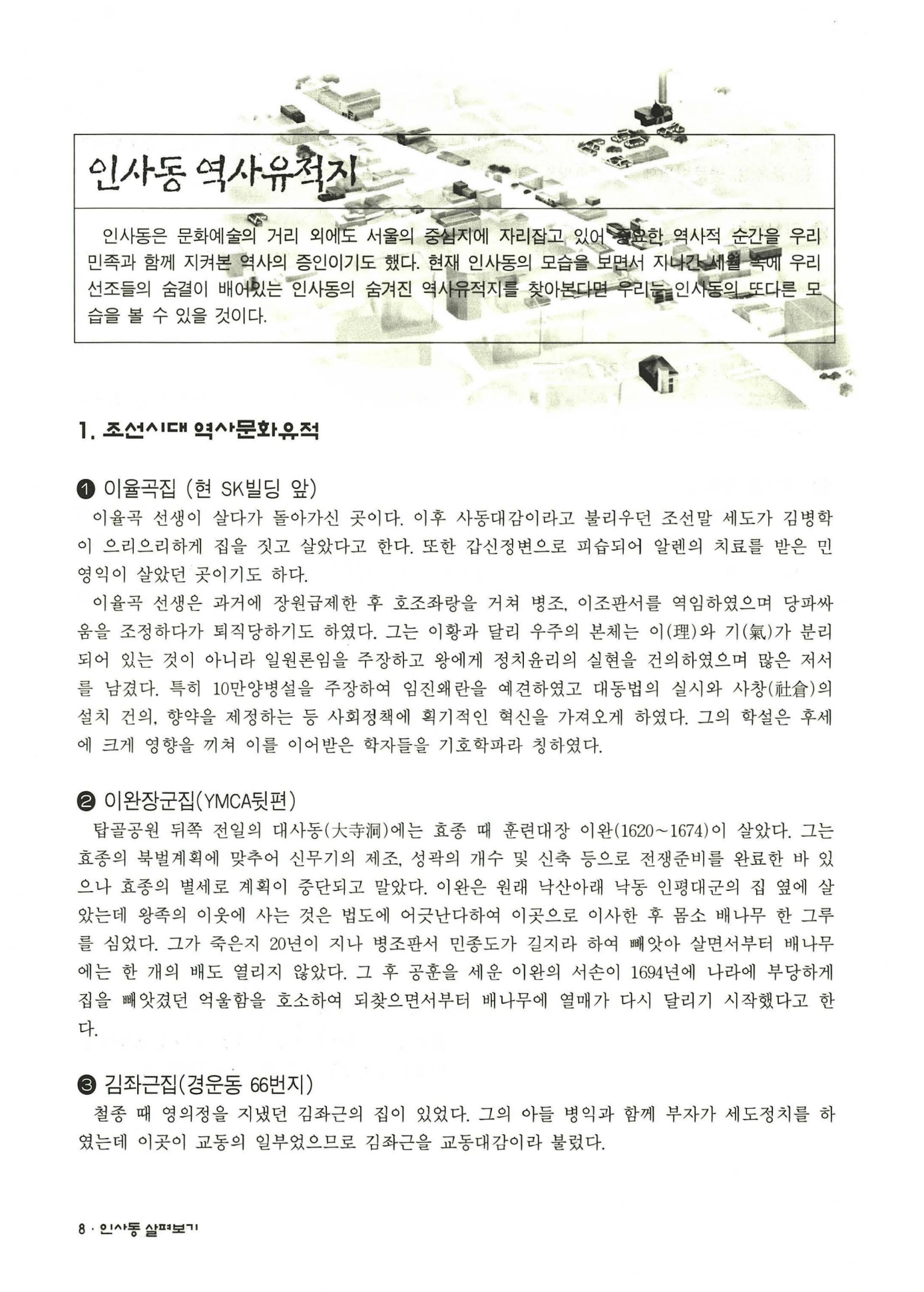
충훈부터와 접해있는 골목은 1900년대 초부터 있던 역사적인 길이다. 산촌골목은 막힌 골목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③ 피맛길(피맛골)

종로 제일은행 건물부터 종묘까지, 그리고 보신각부터 서울극장 뒤편까지 종로 길 뒤로 난 좁은 골목길을 예전에는 '피맛골'이라고 불렀다. 피맛골이란 이름의 유래는 조선시대에 시작되었다. 당시는 하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엎드려 있는 것이 예절로 통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종로거리는 수많은 관직의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라 걷는 시간보다 엎드려 있는 시간이 많기 일쑤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종로 큰길 양쪽 뒤편으로 작은 길을 내 하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다니게 했다. 그래서 얻어진 이름이 '피마골'이며 한자로는 피할피(僻)에 말마(馬)를 쓴다.

내가 만드는 역사문화탐방 주제

- 골목길이 만들어진 이유와 특징에 대해 생각하기
- 한옥과 골목길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기



인사동 역사유적지

인사동은 문화예술의 거리 외에도 서울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어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 민족과 함께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기도 했다. 현재 인사동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인사동의 숨겨진 역사유적지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인사동의 또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 조선시대 역사문화유적

① 이율곡집 (현 SK빌딩 앞)

이율곡 선생이 살다가 돌아가신 곳이다. 이후 사동대감이라고 불리우던 조선말 세도가 김병학이 으리으리하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갑신정변으로 피습되어 알렌의 치료를 받은 민영익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율곡 선생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 호조좌랑을 거쳐 병조, 이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당파싸움을 조정하다가 퇴직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황과 달리 우주의 본체는 이(理)와 기(氣)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원론임을 주장하고 왕에게 정치윤리의 실현을 건의하였으며 많은 저서를 남겼다. 특히 10만양병설을 주장하여 임진왜란을 예견하였고 대동법의 실시와 사창(社倉)의 설치 건의, 향약을 제정하는 등 사회정책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의 학설은 후세에 크게 영향을 끼쳐 이를 이어받은 학자들을 기호학파라 칭하였다.

② 이완장군집(YMCA뒷편)

탐골공원 뒤쪽 전일의 대사동(大寺洞)에는 효종 때 훈련대장 이완(1620~1674)이 살았다. 그는 효종의 북벌계획에 맞추어 신무기의 제조, 성곽의 개수 및 신축 등으로 전쟁준비를 완료한 바 있으나 효종의 별세로 계획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완은 원래 낙산아래 낙동 인평대군의 집 옆에 살았는데 왕족의 이웃에 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하여 이곳으로 이사한 후 몸소 배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가 죽은지 20년이 지나 병조판서 민중도가 길지라 하여 빼앗아 살면서부터 배나무에는 한 개의 배도 열리지 않았다. 그 후 공훈을 세운 이완의 서손이 1694년에 나라에 부당하게 집을 빼앗겼던 억울함을 호소하여 되찾으면서부터 배나무에 열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③ 김좌근집(경운동 66번지)

철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김좌근의 집이 있었다. 그의 아들 병익과 함께 부자가 세도정치를 하였는데 이곳이 교동의 일부였으므로 김좌근을 교동대감이라 불렀다.

④ 민영취집(경운동 68번지)

민영취는 취문의숙을 창설했고, 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⑤ 도화원

조선시대에 그림의 교수, 고시, 제조, 보관 등에 관한 일을 맡아하던 곳으로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으며 도화원에서 도화서로 개칭하였다.

⑥ 충훈부

국가에 공훈이 있는 공신들의 포상, 공적 보존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으며 조선 개국 후 태조는 공신도감을 두어 공신들의 일을 관장하였는데 태종 14년(1414년)에 이를 충훈사로 개칭하고 세조 5년(1459년)에 충훈부로 승격하였다. 이때 북부 광화방 중부사 경내에 새청사를 짓고 수백 결의 토지와 많은 노비를 더 하사하여 상훈, 표창의 업무를 강화했다. 연산군 10년(1504)에 일시 철폐되었으나 중종반정과 함께 다시 설치되면서 현재 관훈동으로 이전되어 고종31년(1894) 갑오개혁 당시까지 계속되었다. 충훈부 건물은 6·25전쟁 때 대부분 파손되었는데 1953년 보신각 복원시 충훈부의 기와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충훈부터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영국군이 일시 주둔했다가 1955년 3월에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인 구왕궁 사무국에서 일반에게 불하하여 개인주택이 들어서게 되었다.

⑦ 죽동궁터(관훈빌딩, 일정빌딩 일대)

순조의 첫째 딸 명은공주와 결혼한 김상용의 8대 손인 김현근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김현근은 정신병이 있었는데 그를 가운데 앉히고 무당들이 둘러서서 대칼을 들고 춤을 추는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공주의 집에서 매일 대칼춤을 추면서 나는 칼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죽도궁(竹刀宮)이라 하다가 죽동궁(竹洞宮)으로 되었다.

⑧ 향교터

조선시대에는 지방에만 설치된 향교가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향교가 고려조에 세워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⑨ 조광조선생집

낙원사가 앞 도로 중앙에 조그만 표석만이 남았다.

⑩ 이문(현 이문설농탕)

이문(里門)이란 10내지 50호의 집들이 사용하는 골목 입구에 세워 골목 안의 집들을 자율적으로 경지하기 위해 세운 문으로 조선시대 방법대책의 하나였다. 공평동과 경계인 인사동 22번지 부근에 이문이 있었으므로 이문동의 동명이 유래되었다. 이문은 옛날에 동리 앞에 문을 세우고 방수하여 도적을 경비하던 곳이다. 우리 나라에서 동리에 이러한 이문이 설치된 것은 이미 고려

병중 때부터의 일이었지만 서울에 이문의 설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 세조 때 경성의 각 부락에 임진왜란으로 서울에 100여개 있던 이문이 거의 소실 당한 후 복구되지 못하였고 순종, 현종 때에는 이곳의 이문터와 동명만 남았을 뿐 서울의 이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화신백화점이 있던 일대를 이문 안으로 속칭하고 있는데 이 이문 안에는 막걸리와 곰탕술국이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 있다. 현재도 1903년에 문을 연 <이문설농탕>집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음식점으로 알려져 있다.

11 서울중심표식

조선시대 번지 지번의 중심에 중심표식을 설치한 것으로 지금의 중심표식자리는 고종 당시 설치된 자리로써 서울의 동지번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2. 구한말, 일제시대 역사문화유적

1 민영환선생님 자결터(현 한미은행 앞)

충정공 민영환은 내부, 학부대신을 지냈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조병세와 백관을 인솔하고 궁궐로 나아가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일본 헌병들의 강제해산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상소를 논의하던 중 이미 대세가 기울어감을 보고 쓰러진 나라를 돌이키지 못한 죄책감을 통감하여 1905년 11월 30일 새벽 6시 이완식의 집에서 유서 5통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2 조선일보사자리(현 우정국로 농협건물)

조선일보는 1919년 10월 대정실업친목회가 주축이 되어 조선일보설립 발기조합을 만들면서 태동되었다. 첫 사옥은 경성부 관철동 249번지로 정했고, 이곳에서 1920년 3월 5일 창간호를 발간했다. 그로부터 50여일 후에는 삼각동으로 사옥을 옮겼다. 또 1년 후에는 수표동 43번지로 이전했고 1925년 12월 28일 견지동 111번지에 새사옥의 기공식을 거행. 드디어 신문사다운 사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옥은 1926년 7월 준공되었으므로 신문사는 창간 6년만에 새사옥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1933년에 가서야 영구적인 사옥을 가지게 되었는데 1934년 3월 사옥은 현 위치에 착공되었다. 이 유서 깊은 터에 조선일보는 급한 대로 먼저 인쇄공장을 준공시켰다. 본관규모는 5층의 철근콘크리트로 계획했고, 그 설계는 한국인 건축가 박동진이 맡았다. 신축사옥은 1935년 6월 준공되었다. 이 사옥은 신문사로서의 용도만이 아니라 좌측면 3,4층 부분에 있던 대강당을 다목적 홀로 사용되어 1930년대 후반기 이후의 개화기적 계몽사업에도 크게 기여했다. 8·15해방 후 이 강당은 한때 시네마극장으로 전용되어 1969년까지 주변의 아카데미, 국제극장과 함께 신극장가를 이루었다. 조선일보는 1969년 사옥 후면에 현재 사용중인 새사옥을 짓고 다시 이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호텔을 짓기도 하고 사옥은 철거했다.

1926년에 세워진 현재의 조선일보사 자리는 최초의 신축 사옥으로 9년간 사용하였다.

③ 장안사터(현 새마을회관)

최초의 신식극장으로 신파극인 불여귀, 장한몽 등이 공연되었다.

④ 서북학회자리(현 건국빌딩 주차장)

1908년에 서북학회(안창호, 이갑, 이동휘 등 서북 5도인에 의해 결성된 애국계몽단체로 <서우학회>, <한북학회>를 병합해서 설립되었는데 학회보 간행, 순회강연 등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일제침략을 배격하는 운동을 했다. 이 건물의 준공은 1908년 1월에서 6월 사이로 보인다. 한일합방이 되던 해인 1910년까지 애국계몽운동의 전진기지로 역할하다가 서북학회가 강제 해산된 후에는 오성학교(후신은 협성학교)의 교사로 사용되면서 교육기관으로 쓰여졌다. 그후 1918년에서 1922년까지 고려대(당시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었고, 그후 협성학교가 다시 사용하던 중 1939년 윤석창이 인수하여 <민중병원>으로 전용되었다. 8·15해방 후 다시 1946년 5월에 조선정치학관(후신 건국대학교)으로 사용했는데 그후 건국대학 야간부의 낙원동교사로 계속 사용되다가 1977년에 도시계획으로 헐렸다. 건국대학교는 해체된 회관의 해체물을 보관해 오다가 1984년 12월 현 건국대캠퍼스 구내에 복원하여 1985년 11월 준공되었다.

⑤ YMCA

일제시대에 건립된 근대 청년운동의 중심지로서 3·1운동과 105인 사건 등 많은 독립운동의 중심지이다. 1908년에 지어진 3층 양식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1968년에 현재의 건물이 김정수씨의 설계로 지어졌다.

⑥ 우정총국

우정국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혁명적 장소로 더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우정총국이라고도 불리어졌다. 원래는 근대식 우편제도를 처음 국내에 도입한 개화기의 한 상징물이며 우정국은 1884년 3월 설립되었다. 건물은 전동 전장감지에 세워졌다. 기록에 없지만 건물은 여러 동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직설적 복고주의 건물이 채택되었다. 정변이 실패한 후 우정국은 파괴되었고 그 기구는 폐지되어 버렸다. 그 이후 이 장소에는 한어(漢語)학교가 들어서기도 했고, 이어 중동학교가 사용하기도 했으며,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체신부가 인수, 현재의 체신기념관으로 전용되고 있다.

⑦ 천도교중앙대교당(경운동 88)

1921년에 신축된 천도교회의 총본산으로 서울시 지정 지방유형문화재 제 36호이다.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명동성당과 함께 서울에서 세 번째 높은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3대 교주 손병희가 주동하여 1918년 12월 1일 기공하였으나 건축비가 3·1운동 자금으로 거의 투입되어 건축이 어려워져 1921년 2월 28일에 완공되었다. 4층 벽돌로 지은 이 건물의 면적은 총 280여 평이며, 국내외의 교도 300만이 낸 22만여원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기념물이다.

건물평면으로 본다면 돔부분이 앞에 놓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T자형으로 변형되어 있으며 내

부도 교회당이라기보다는 강당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건물의 기초부는 화강석을 사용하고,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았으며 지붕은 맞배로 되어 있고 탑의 지붕은 바로크풍으로 특이하다. 전체적인 건축양식은 여러 양식이 종합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엔나 세제션의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이 양식은 당시 유럽에서 널리 유행하던 것이었는데 설계한 일본인이 독일인 건축가 ‘안톤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시기 독립운동의 발원지였으며 이후 <개벽>지가 발간되었으며 소파 방정환선생의 어린이운동 등 문화계몽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탑의 지붕부분은 바로크양식으로 건물전체는 어느 양식에도 속하지 않는 비교적 독특한 의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교당 곁에 있는 수운회관은 1970년에 지어졌는데 100만 천도교인들의 신앙중심지이다.

⑧ 독립선언문배부터(현 수운회관정문 앞)

수운회관 정문 앞에 표석이 남아 있으며 이곳에서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이 배부되었다.

⑨ 승동교회

반선교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교회로서 종로 인사동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최고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김홍근대감택이었으며 1905년 승동교회가 이전하였다. 승동교회는 1893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무어에 의해 설립되었다. 곤당골 교회에서 분할 받은 16명의 교인으로 중앙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1905년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때에는 교회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학생시위운동을 일으켰다.(교회 지하실에서 경성의 전문학교 학생 20여명이 모여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했다고도 하며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고도 전함.) 또한 이 교회에서 YWCA가 창립되었다. 1934년 승동교회로 개명되었으며 1939년 지금의 한신대학 전신인 조선신학교가 이곳에서 개교되었다. 승동교회는 1957년 증개축 당시에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모이던 지하실을 매립했고 전면을 완전히 변형시켰다. 측면은 붕괴를 막기 위한 buttless가 불품없이 처져 있다.

⑩ 중앙교회

일제 초기에 창립되었다. 이 교회의 김창중목사와 박의도 전도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의 하나이다.

⑪ 탑골공원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흥복사가 있던 곳이다. 태조 때 조계종 본사였으나 훗날 폐찰되어 공해전이 되었다가 세조 때 개창하여 원각사라고 칭했다. 1554년 명종 때 대화재로 타버린 것을 1897년 광무 1년 총세무사의 고문으로 와 있던 영국인 브라운이 정부에 건의하여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공원 이름은 원각사 창건 당시 세웠던 탑이 있어 <파고다공원>이라 한다. 1919년 3월 1일 정재용 선생이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킨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다.

3. 사라지거나 훼손된 역사문화유적

① 태화관(현 태화빌딩)

인사동 194번지에는 12층의 태화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처했다. 우선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수양대군의 사위 구수영이 살았고, 그의 후손 구사맹이 소유했는데 그의 딸이 인조의 생모 인현왕후였으므로 인조가 어릴 때 이 집에서 자랐다.(인조가 자라던 잠저터) 그래서 후일 영조는 부용당 앞의 연못을 잠용지라고 친필 현판을 걸게 했다. 당시 장안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이 주택은 태화정으로 불리었는데 안동 김씨에게로 넘어가 경상도관찰사, 영의정 등을 역임한 김홍근의 소유가 되었다.

김홍근과 관련한 일화이다. 경상도 관찰사, 영의정 등을 역임한 김홍근이 극심한 안동 김씨의 폐단 속에서도 고고한 인망을 받았던 것은 정수동의 도움이 컸다. 정수동이 김홍근의 문객으로 자주 그의 집을 드나들 무렵 김홍근은 남의 돈 이만냥을 가로챈 사실로 원망을 듣고 있었다. 어느 날 김홍근의 집을 찾은 정수동에게 사색이 된 계집종이 달려와 '세살된 어린 자식이 돈을 삼켜 목에 걸렸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당황하며 물었다. 정수동은 점잖게 아이가 삼킨 돈이 남의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것인지를 물었다. 계집종이 자기 것이라고 하자 이번에는 몇 푼을 삼켰느냐고 물었다. 한푼이라고 하자 정수동은 '아무 걱정 말아라. 남의 돈 이만냥을 먹고도 아무 탈이 없는데 자기 돈 한푼을 먹었다고 죽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방안에서 들은 김홍근은 그 길로 이만냥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정수동에게 자신의 청렴을 구해주었다고 고마워한 뒤 두고두고 그 말을 교훈으로 삼았다.

이 후 현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의 순화궁이 되었고 순화궁이 반송방으로 이전한 후 빈집으로 남아 있던 이곳을 이완용이 소유했다. 이완용이 살던 어느 날 소나기와 함께 정원의 고목에 벼락이 떨어져 둘로 갈라졌으므로 크게 놀라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장안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 먹은 이완용을 하늘이 대신 천벌을 주었다.'고 쭈군거렸다.

이후 1918년 화재로 손실된 명월관의 주인이 인수하여 명월관의 분점격으로 운영하였는데 옥호를 태화정이 있는 곳이라 하여 태(太)화(華)관이라 하였다가 후일 태(泰)화(華)관으로 고쳤다. 외진 위치에 있던 태화관은 2층으로 크고 작은 방이 많아 장안의 부호와 총독부 관리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 3·1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의 장소로 선택하였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 2층 동쪽 끝방에 모여 한용운의 사회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29인이 먼저 체포되었으며 늦게 도착한 손선주 등 세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투옥되었다.

궁정양악대(宮廷洋樂隊)출신들이 만든 우미관양악대와 단성사양악대가 자주 출연하던 태화관은 헐리어 기독교 감리교 여자교육기관인 태화회관이 설립되었으나 공평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12층 높이의 태화빌딩이 들어섰다.

② 윤치호집(현 도원)

한말 정치가로서 선교와 교육을 통하여 국민계몽을 주장했으며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검거되

기도 했던 독립운동가였으나 후에 친일파로 변절하였다고 한다. 일기를 영어로 쓸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여 <이습우화>, <걸리버여행기>를 번역하여 알리기도 하였다.

③ 민익두가

개량주택으로서 우리 나라 최초의 건축가 박길룡이 설계한 주택이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 15,16 호이다. 민보식(민병도대감-휘문재단-과 사촌)이 두 아들을 위해 똑같은 형태로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집은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네모가 반듯한 집터의 동쪽에 일각대문이 나있고 앞마당 남쪽 담장 밑으로 작은 화단이 있으며 마당 서북쪽에 H형 평면의 중심축에 놓인 부엌이 사방 2칸 크기로 자리잡고 있다. 이 집의 설계는 일제당시 화신백화점을 설계했던 한국인 건축가 박길룡의 작품이라 전하며 한옥의 화장실과 목욕탕을 내부로 넣고 이들을 연결하는 긴 복도를 둔 점 등은 1930년대 개량한옥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주택사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④ 박영효집(현 경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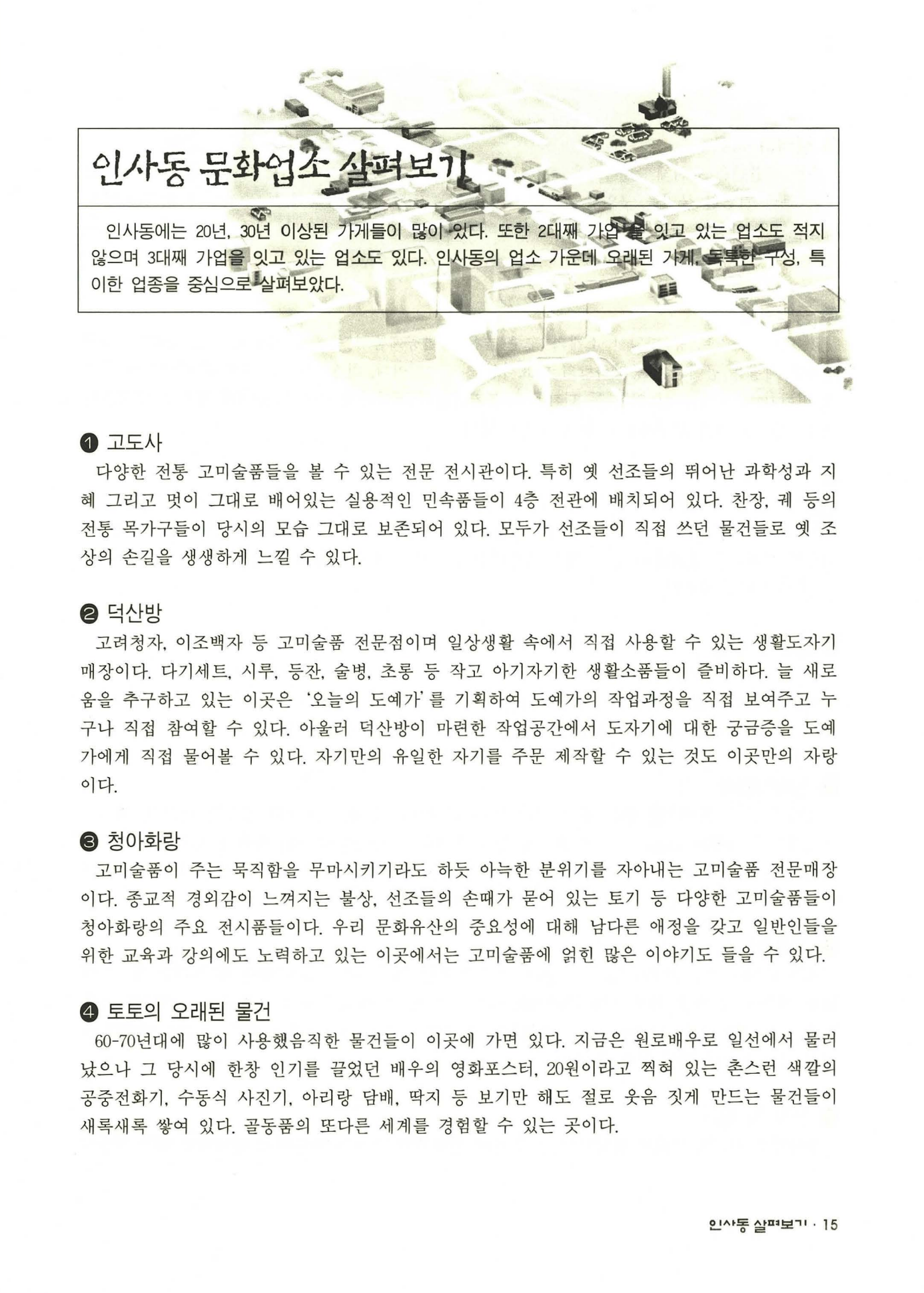
철종의 부마 박영효가 살던 집은 서울시 민속자료 제 18호로 지정되어 이진승가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궁궐 다음가는 대저택으로 유명하며 속칭 서울의 8대가 중의 하나였다. 대문간 옆에는 2칸의 온돌방이 있고 그 옆에 6칸 이상 크기의 부엌이 자리잡고 있다. 부엌 옆은 안방으로서 방 앞에는 퇴가 있고 방뒤쪽으로도 퇴간과 조그만 방이 붙어있다. 안방 옆은 작은 대청으로 2칸 크기의 마루를 중앙에 두고 다시 방들이 부속되는데, 이 방은 1963년도에는 하나의 방과 툇마루였으나 그 동안 개축된 것이다. 이 방 남쪽으로 큰 대청이 놓여 있다. 기단은 화강석을 2단으로 쌓았다. 지붕은 팔작이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퇴간 앞의 창호는 모두 유리분합문을 달았으나 이는 후대에 고친 것으로 추정되며 덧문은 떠살문이고 쌍창은 아(亞)자살 창이다. 마루 밑에 환기공을 이룬 벽돌모양과 정교한 난간구조 및 기둥과 보밑에 파련각한 낙양 등은 흔치않은 수법이다. 이 집은 현재 남산골 한옥촌으로 이전되었다.

한때 이 집은 군부대신 이용익과 공주 갑부 김갑순이 살기도 했으며 현재 1983년 7월부터 이금한씨가 개축하여 경인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영효는 1861년생으로 개화파였다. 1882년 임오군란의 사후수습을 위해 특명전권대사 겸 3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 일본정계의 지도자 및 구미외교사절들과 접촉했다.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한성판윤 재직시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 박문국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발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민씨정권의 견제를 받아 광주유수로 밀려났으나 오히려 이곳에서 신식군대를 양성했는데 이중 일부가 갑신정변에 동원됐다는 후문이 있다.

내가 만드는 역사문화탐방 주제

- 한옥과 역사문화유적 보존상태와 활용방식에 대해 생각하기
- 조선조 사회생활상을 알 수 있는 역사유적지 살펴보기
- 보존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인사동 문화업소 살펴보기

인사동에는 20년, 30년 이상된 가게들이 많이 있다. 또한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업소도 적지 않으며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업소도 있다. 인사동의 업소 가운데 오래된 가게, 독특한 구성, 특이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고도사

다양한 전통 고미술품들을 볼 수 있는 전문 전시관이다. 특히 옛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성과 지혜 그리고 멋이 그대로 배어있는 실용적인 민속품들이 4층 전관에 배치되어 있다. 찬장, 궤 등의 전통 목가구들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모두가 선조들이 직접 쓰던 물건들로 옛 조상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② 덕산방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고미술품 전문점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 매장이다. 다기세트, 시루, 등잔, 술병, 초롱 등 작고 아기자기한 생활소품들이 즐비하다. 늘 새로운 추구하고 있는 이곳은 '오늘의 도예가'를 기획하여 도예가의 작업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덕산방이 마련한 작업공간에서 도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도예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자기만의 유일한 자기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자랑이다.

③ 청아화랑

고미술품이 주는 목직함을 무마시키기라도 하듯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미술품 전문매장이다. 종교적 경외감이 느껴지는 불상, 선조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토기 등 다양한 고미술품들이 청아화랑의 주요 전시품들이다.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과 강의에도 노력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고미술품에 얽힌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④ 토토의 오래된 물건

60-70년대에 많이 사용했음직한 물건들이 이곳에 가면 있다. 지금은 원로배우로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그 당시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배우의 영화포스터, 20원이라고 적혀 있는 촌스런 색깔의 공중전화기, 수동식 사진기, 아리랑 담배, 딱지 등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물건들이 새록새록 쌓여 있다. 골동품의 또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⑤ 갤러리 이후

주로 대관전을 유치해 온 이곳은 항상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다. 회화와 공예작품, 생활자기 등의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샵도 갖추고 있다. 특히 매 주말마다 열리는 행위 예술공연은 다양한 방면의 예술인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누드 크로키가 열린다.

⑥ 중앙화랑

금속, 종이, 칠보 등 다양한 소재의 수준 높은 생활공예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직접 제작한 재활용 공예품은 중앙화랑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다. 천장 가득히 걸린 캔 비행기와 우유팩 비행기, 움직이는 캔 인형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가득하며 우유팩 공예의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도구세트도 함께 갖추고 있다.

⑦ 창원표구사

30여년간 표구만을 해 온 이영균씨의 작업공간이다. 고서화 복원을 전문으로 하며 특히 전통 표구기술을 전수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고 있다. 15년 이상 배워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는 곳, 진정한 장인정신을 가르쳐 우리 문화를 철저히 전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곳이다.

⑧ 명신당 필방

2대째 가업으로 이어받아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필방이다. 특히 전각을 전문으로 하며 누구든 원하는 서체로 30분 이내에 훌륭한 전각을 완성해준다. 전각과 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이 배울 수 있어 좋다. 또한 소품으로도 훌륭한 다양한 문방사우를 접할 수 있다.

⑨ 전복지업사

종이에 관한 것이라면 없는 것이 없다. 익히 들어왔던 한지, 전지부터 생소한 냉금지, 깨지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용도의 천차만별함에 입이 벌어진다. 서예에 관련된 용품과 서적도 준비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함을 더해준다. 한쪽 벽면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신년이 되면 하늘에 띄웠던 방패연과 열레도 있어 어린 시절 추억에 젖게 한다.

⑩ 서울차생원

차와 다기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우리네 전통차와 중국차 등 다양한 차 종류를 비롯하여 넓은 매장을 꽉 채운 여러 가지 다기세트들과 차 마실 때 필요한 모든 소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젊은 신진작가들이 만든 다기 작품들은 이곳의 이채로움을 더하고 있다. 다도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이곳에 가면 배울 수 있다.

⑪ 한지 차 향가

한마디로 차, 향, 그리고 한지가 있는 곳이다. 전통차와 다기는 물론이고, 한약재로 만든 전통의

천연 향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쭉, 진달래 등을 이용한 천연염색의 한지에 대나무 잎을 넣어 만든 고풍스런 벽지와 버티컬 등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가장 순수하고 한국적인 우리의 옛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2 귀천

고 천상병 시인의 부인인 목순옥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찻집으로 아담한 공간 안에 모과향이 가득하다. 모든 손님들이 친구가 되어 옹기종기 둘러앉아 차를 마신다. 천상병 시인의 시집들이 한 쪽에 차곡차곡 꽂혀 있고, 시를 사랑하는 옆자리의 사람들이 시와 시인의 작품세계를 이야기한다. 직접 만든 차 한잔에 삶의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동안은 누구나 잠시 시인이 되어 그윽한 시향을 음미할 수 있다.

13 통문관

1934년 인사동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고서점으로 17세때부터 서점 점원으로 시작한 이점로씨의 뒤를 이어 아들 이동호씨가 운영하고 있다. 인사동에서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파고드는 고서들의 냄새가 70년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국학관계 고전, 옛날 경서류와 문집류, 조선사에 관한 책, 족보 등이 4층까지 빼곡이 쌓여 있다. 한때 국어학회 학회실로서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들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고서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사동 거리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덩으로 들을 수 있다.

14 통인가게

인사동의 특색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이곳은 1024년 문을 연 이래로 긴 역사적 전통을 자랑한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지하에는 금속공예품과 도자기, 그릇 등이 전시되어 있고 1층과 2층에는 생활 공예품이, 3층에는 고가구가, 4층과 5층에는 고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주말과 계절별로 펼쳐지는 다양한 마당 이벤트는 특별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며 특히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24년 종로구 통인동에서 문을 열어 1960년대에 현재 자리로 옮겨왔다. 설립자 김정환씨의 아들 김완규씨가 운영하고 있다.

15 동산방화랑

1974년 견지동에 화랑을 개업했다. 표구상으로 시작하여 초기 한국화를 중심으로 전시하였으며 80년 가을에는 민족민중미술운동을 촉발시킨 <현실과 발언>동인전을 연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아들 박우홍씨가 운영하고 있다.

16 박당표구사

1970년대 초에 인사동으로 이전한 최초의 표구사이다.

17 구하산방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서울역 근처에 처음 세워졌으며 충무로, 명동 등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해방 이후 구하산방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홍기대씨가 인수했고 60년대에 인사동으로 들어왔다. 현재 홍씨의 조카, 사촌동생들의 손을 거쳐 홍씨의 사촌인 홍수희씨가 운영하고 있다.

주요 탐방지점

- 명신당필방, 한지 차 향가, 전통다원(경인미술관)
- 귀천, 전복지업사, 중앙화랑, 안국동로터리, 청아화랑

내가 만드는 역사문화탐방 주제

- 청아화랑: 골동품이란 무엇일까? 골동품의 진품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안국동 로터리: 거리 판화전 관람
- 한지 차 향가: 우리 향이란? 향의 종류, 효능에 대하여 살펴보기
- 전복지업사: 종이의 종류와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기
- 명신당필방: 붓의 용도, 우리 털붓과 중국 털붓의 비교, 서예에 대하여 살펴보기
- 귀천: 천상병 시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 중앙화랑: 재활용공예품에 대하여 살펴보고 직접 재활용 공예품을 만들어 보자.
- 전통다원(경인미술관): 전통차에 대하여 살펴보기

민익두가(«) 살리기는 인사동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1. 인사동 살리기는 민익두가(家) 살리기부터

격변하는 현대도시 서울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사동에서 「민익두가(家)」는 마지막 남은 상징물이다. 지금 인사동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와 「민익두가(家)」(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만 남아 있다. 이중 「민익두가(家)」는 조선을 대표하는 근대건축가 박길룡 선생이 우리 전통한옥을 근대적 도시생활에 알맞도록 설계한 주택이다. 「민익두가(家)」마저 박영효가나 태화관처럼 사라진다면 인사동에서 생활 속에 면면이 이어져온 역사의 흔적은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인사동 살리기는 「민익두가(家)」 살리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민익두가(家)」를 아세요?

경인미술관 오른편(경운동 66의7)에 있는 「민익두가(家)」는 「화신백화점」을 설계했던 조선 근대건축가 「박길룡(朴吉龍)」 선생이 전통적인 한옥의 건축양식과 근대적인 건축제도를 조화시킨 개량한옥이다. 대지 2백44평, 건평 51평으로 팔작지붕에 기둥을 흘리고 변소, 목욕탕을 내부에 설계해 개량한옥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집은 개량한옥의 도입취지에 충실한 집이면서도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어 한국주택사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현재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이다.

특히 「민익두가(家)」의 특징은 일반한옥에서 보기 어려운 '工'자형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기단이 없이 바로 기초를 땅 아래로 해서 건물의 주위를 창과 유리로 만든 문짝으로 두른 점, 건물의 마구리면을 현관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전통한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복도를 두어 좌우에 작은 방들을 만든 점이 특색이다.

원래 민씨가문에서 두 형제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같은 형태의 한옥이 그 옆에 한 채 더 있었다. 「민익두가(家)」와 함께 지방민속자료 15, 16호로 각기 지정되어 있던 그 집은 90년대 초에 헐리고 현재 주차장(경운동 66의8외 1)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민익두가(家)」마저 지난해 도시계획으로 사라질 뻔 했다.

3. 「민익두가(家)」, 시민의 손으로 살려야 한다

그 동안 서울시의 문화재보존행정은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역사적 가치를

가진 박영효가는 남산·한옥골로 가져가서 장소적 가치를 잃게 하고 박물관 유적처럼 박제화시켰다. 「민익두가(家)」 또한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만 했을 뿐 보존과 보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민익두가(家)」는 민속자료로 지정만 된 채 빈집이 되어 기둥이 썩어 들어가고 창문과 창틀이 깨어진 채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4대문 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버젓이 인사동길 탐방명소로 「민익두가(家)」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

뒤늦게 서울시는 「민익두가(家)」를 사기 위해 예산까지 배정하고 있지만 시가 산출한 감정가와 소유자가 제시하는 시세가의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기금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문화유산을 사들이는 운동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를 내셔널 트러스트법(공공신탁기금법)이라 한다. 영국에서는 19세기말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됐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까지 이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때문에 시민단체의 기금모집조차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문화를 시민의 손으로 지키고 보존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함에 있다.

우리의 요구

- 서울시는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민익두가(家)」 보존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의 계획

- 「민익두가(家)」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 시민기금으로 역사 문화적 자원을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신탁기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익두가(家)」살리기 서명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할 것이다.



도시연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2-28(2층)
전화 02-332-6044 · 전송 02-332-6010